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9호 [루게 제24462호] 주제 103 (2014)년 2월 18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경기를 보시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경기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체육경기를 보시였다.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 서홍찬동지, 김명식동지, 리병철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경기를 보았다.

경기장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체육경기를 보게 된 관람자들의 기쁨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며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광명성절을 뜻깊게 맞이한 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 군인들은 갈매기팀으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



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은 제비팀으로 경기에 출전하였다. 경기는 배구와 바둑당기기로 승부를 겨

루었다. 먼저 배구경기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원대한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훈련의 실참마다 대승체육활동을 힘있게 벌려온 량팀 선수들은 자기 팀의 전술

군대가 앞장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체계를 잘 살리면서 경기를 운영하였다.

배구경기는 제비팀의 승리로 끝났다.

이어 바둑당기경기가 진행되였다.

완강한 의지와 인내력으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치렬하게 벌어진 바둑당기경기는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무한한 힘과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바둑당기경기에서도 제비팀이 이겼다.

경기에서 우수한 팀에 대한 사상이 있었다.

체육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리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소리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하시며 경기성가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 군인들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경기가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였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데서 인민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광명성절경축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72돐에 즈음하여 공훈국가합창단의 광명성절경축 공연이 인민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 변인선동지, 서홍찬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공연을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경축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에 넘쳐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갈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담례를 보내시며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맞이한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공연무대에는 남성합창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장군님 백마라고 달리신다》, 관현악 《장군님을 우러러 부르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쳐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천만군민의 역센 신념과 의지가 장내에 도도히 굽어졌다.

공연무대에는 남성합창 《전선가까운 숲속에》, 관현악 《세계명곡목음》을 비롯한 외국곡들도 울렸다.

심장의 피를 세차게 끓게 하는 공연, 세련되고 참신한 공연,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노래한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결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소구지는 격정에 겨워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은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흠모와 다함없는 신리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 그 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담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 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과감히 벌립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을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어나가는 장엄한 투쟁으로 더욱 힘있게 불려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노래》, 무반주합창 《흰눈이 내리는 데》, 기악3중주 《우리 당의 자랑이라네》, 혼성2중창과 남성합창 《바다의 노래》, 관현악 《매혹과 흥모》, 남성합창 《백두산바람 분다》, 《병사들은 행군해간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이 전면적으로 꽃피어나는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자신의 한몸을 초월처럼 태우시며 한평생을 애국애민의 헌신과 로고속에 바쳐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칭송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김일성민족이 대대손손 번영해나갈수 있는 만년터전을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은 주체조선의 영상으로 언제나 우리 군대와 인민과 함께 계시며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사는 백두산대국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흐를것이라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남성합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는다》로 절정을 이룬 공연은 세상 천지가 열백번 뒤집히고 그 어떤 역풍이 불어치대도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만을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백두산혁명장군의 철석같은 맹세를 힘있게 파시하였다.







#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시는 절세의 애국자

## 조국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어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필생의 위업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 다시금 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한몸에 안고 탄생하시어 이 땅위에 주체조선의 찬란한 전성기,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동지, 그녀는 누구도 따를수 없는 탁월한 평도력과 위인적풍모를 지니시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통일애국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며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영원히 빛날 공적을 쌓으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분열의 고를 누누보다 더 깊어지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기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어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생은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굳건히 고수하고 드림없이 계승하시며 정력적인 사상리론헌동과 애국애족의 평도 조국통일위업실현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신 불멸의 공적으로 빛나고 있다.

은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이끌고 번창하는 신념과 의지를 담아 주제 87 (1998)년 4월 18일 남북연석회의 50쪽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서한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보내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한에서 민족 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면서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섭하고 단합시키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방침과 일관한 정책을 다시금 표명하시었다. 또한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해도 과거를 뒤우치고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을 아량으로 대하며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당, 야당인사들, 대자본가, 관장성들과도 인종대결의 기치 밑에 단합할것이라고 지적하시었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겨레를 끊임없이 격동시키였으며 그들을 자주통일위업실현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성된 정세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거듭하시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민족주의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굳게 묶어세우시고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을 위한 근본지침을 마련해주시었다. 그이께서 력사와 민족앞에 쌓으신 또 하나의 영인불멸할 업적이다.

사상이나 리념보다도 민족을 앞에 놓으시고 민족적합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단결하여 조국통일의 한데 오에서 손잡고나가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덕담은 실로 력사상 그 어느 위인도 지닐수 없는 가장 위대한것이었다.

주제 89 (2000)년 6월 민족분열사상 나쁜데로 이끌려 민족적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단합, 나라의 통일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대법한 용단을 내리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평도에 의하여 펼쳐진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는날 천리혜안의 예지와 넓은 포용력, 해박한 식견으로 남측성원들과 여러차례의 격심없는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통일의 근본원칙과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일일이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마침내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게 되었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불신과 대결의 낡은 시대는 밀려나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함께 통일로 나아가는 6.15시대가 열리었다.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어 겨레에게 21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를 뚜렷이 세워주시고 북남관계개선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정치성력과 위인적풍모앞에 온 민족은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장군님의 찬란한 민족의 위대한 태양,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슬이시라고 격조높이 예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서 이미 자기 발전의 궤도에 올라선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시켜 평화와 번영의 새 민족사를 개척할 웅대한 뜻을 품으시고 주제 96 (2007)년 10월 10일 평양의 평양상봉을 진행하시어 6.15 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마련해주시었다.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한데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다방면적인 협력을 진행할것을 명기한 10.4선언이 채택된것은 분렬된 민족의 고통을 하루빨리 가시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희망찬 메일을 앞당겨

오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결단이 아닌은 특대사변이었다.

우리 겨레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투쟁해나간다면 조국의 자주적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탁월한 예지와 비범한 평도력으로 조국통일위업실현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받들고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다. 해외의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태양의 모습으로 영원히 간직되게 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철석의 신념이다. 사상도 평도도 품도도 어버이장군님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는데서 계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자주통일의 굳건한 토대가 있기에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우리 민족의 전도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념원하시던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한몸 다 바쳐 투쟁하시려는 우리 겨레모두의 숭고한 도덕리념이 우리 거머를 민족주의의 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굳게 뚫어 투쟁해나간다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되리라 믿는다.

본사기자 김 현 철

#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

### 김이 새겨주신 애국의 진리

주제 71 (1982)년 9월 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서한 선언문과 뜻깊은 담화를 나누시었다. 그이께서는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이 할 때마다 수령님께 대하여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전진업적에 대하여 뜨겁게 추켜 올리시었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 백두의 협산준령을 넘나드리며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신것은 분렬된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우리 수령님께서 백두영애에서 등강산을 드시고 비쳐보신 우리 나라의 지도는 백두

산에서 한나산에 이르는 삼천리조선이었고 결코 두둥강이 난 조선이 아니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민족분열의 첫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로고를 멀어드리지 못하는것이 너무도 안타까우시어 그리도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라는 일꾼들의 가슴은 뭉클 찾아들었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서한 조국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조선민주주의로써의 자국도,

조선에서 잘 자기도 상상한 목석이라고, 민족의 분열을 가장 큰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이라고 애국자이며 혁명가라고 말씀하시었다. 계속하여 이이께서는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참다운 애국의 진리를 새겨주는 절세의 위인의 말씀을 받아들인 일꾼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 몸 다 바쳐갈 열심으로 가슴 불태웠다.

### 민족대단결에 대한 철석의 의지

주제 78 (1989)년 4월 2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서한 민족의 대단결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 사상은 참으로 위대하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서서한 혁명투쟁시절에 민족대단결 사상을 밝히시고 민족적단결로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던것은 해방후에는 조국개신설에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라고 호소하시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우시었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민족의 대단결을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당의 의지이라고 결연히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이날 통일이 애국이고 분열이 매

국이듯이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민족대단결을 저해하는 사람은 애국노이라는 말씀도 주시었다.

민족의 대단결을 조국통일의 근본문제라고 삼으시고 은 민족의 단합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시려는 그의 철석의 의지는 해외의 동료들이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과감히 나서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되나

###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심어주시어

주제 89 (2000)년 6월 30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서한 제이문포년유기자언명명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 조항이 기본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제이문포년유기자는 북남관계에 대하여 세심히 물어주시어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부어주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서한 북남수뇌상봉이 가지는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뜻깊은 통일을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이번에 북남관계상 처음으로 수뇌상봉을 실현하고 북남공동선언을 채택하였

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북과 남이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사변적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서한 민족대단결은 우리 민족대부분에게 민족주의의 파급이라고,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우리가 시종일관 주장해 온것이 자주문제이고 이 모든 북남공동선언에도 조선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이 주된 의의에 우리 민족자애의 힘으로 해결한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

면서 북남공동선언에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 조항이 기본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제이문포년유기자는 북남관계에 대한 세심한 물음주어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부어주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서한 북남수뇌상봉이 가지는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뜻깊은 통일을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이번에 북남관계상 처음으로 수뇌상봉을 실현하고 북남공동선언을 채택하였

### 광명성철과 더불어 영원히 전해질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셨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할애하셨으며 조국통일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니다.》

삼천리조국강산에 넘쳐나는 2월의 봄빛과 더불어 우리 겨레모두의 가슴속에 뜨겁게 이어오는 숭고한 감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저절로 흐르는 사색과 정력적인 평도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주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도의 정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평도의 나날에는 정평 감격이 없이는 될수 없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수없이 있다.

주제 62 (1973)년 2월 15일 밤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서한 몇몇 일꾼들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주시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몇시간 앞둔 뜻깊은 그 밤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 일꾼들의 가슴속에는 그러나 흥분과 격정으로 끓어번졌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벽시계는 2월 16일 새날을 알리었다. 일꾼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경건히 옷깃을 여미고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 축원의 인사를 삼가 올리었다.

일꾼들이 올리는 인사를 사당하셔 밝은 미소를 짓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나는 동무들이 나에게 주는 축하를 조국을 통일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쁘게 드리는 행사와 부락으로 알고 반겼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의 말씀은 일꾼들의 가슴을 더더욱 뜨겁게 울려주었다. 만민의 축하를 받으셔야 할 민족적정서의 날인 자신의 생신날에도 전사들이 올리는 축원의 인사를 어버이수령님께 통일의 기쁨을 드리는 행사와 부락으로 알고 반겼다고 하시어 정평 조국통일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은 얼마나 뜨겁고 절절한것인가.

일꾼들은 목이 메어 그이께 대한 말씀을 더 울림이 없었다. 그들은 진정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그토록 심려하시던 한시도 마음놓지 못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우리러도 그이께서 간직하녀 염원하시는 조국통일을 위해

어 한 일이 너무나도 적은 자신들을 두고 커다란 자책감에 모대기였다.

일꾼들의 심증을 해라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우리가 같은 아직 멀고 험하다. 그렇지만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과 더불어 멀고 험하지만 밟고 영평스러운 우리의 시대를 끝까지 개척해나갈것이라고 굳연하게 말씀하시었다. 온 나라가 축원의 꽃바다로 물결치고

들이 보고싶은 찾았다고, 오늘 저녁에는 동무들과 함께 조국통일을 앞장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론해보자고 소망하러 말씀하시었다. 그리고시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바로 조국통일이라고, 조국통일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밟아 깊도록 조국통일문제를 밟아 깊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비상한 통찰력과 명석한 판단력으로 안과

다고, 우리가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수령님의 걱정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고 일꾼들은 그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줄은 평생을 다치고 또 다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꾼들을 이같이 간곡하게 말씀하시었다. 군들이 언제나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고, 새벽이 일어나 창문을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참된 승리의 모습**

포항구역 수복고급학교 교원 윤정환동무

위대한 평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교원들은 쏘이 나루를 가꾸는 원예사와도 같이 조국의 미래를 가꾸고 키우는 혁명가들이이다.》

명화의 뒤에는 명화가 있고 명화의 뒤에는 그를 키운 훌륭한 스승이 있기 마련이다.

얼마전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수백명의 제자들을 미술창작기과의 장작가르, 미술교육부문의 교원으로, 공장, 기업소들과 인민군부대의 직판원으로 훌륭히 키워낸 윤정환동무를 만나보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

교장 김정철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미술소조실을 가까이하던 우리는 문득 발견을 멈추지 못했다. 소조실밖에서 두 사람이 기다리고있었기 때문이었다.

저 사람들이 누군가고 묻는 우리에게 교장은 윤정환교원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먼저 만나보았는지 물어볼 줄을 알고 말했다.

우리는 그들부터 만나보았다. 한명은 평양미술대학 교원인 윤이준이었다.

평양미술대학의 교원은 중학교 시절 자기의 작품 《작은 주

만민의 뜨거운 마음이 달려오는 가장 경사스러운 날, 이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실 대신 조국통일을 위한 평도의 거룩한 자국을 새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리러도 일꾼들은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주제 64 (1975)년 2월의 명절에는 이런 사연도 있었었다.

2월 16일 저녁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무런 기별도 없이 어느 한 단위의 일꾼들을 찾아주시었다. 뜻깊은 2월의 명절날에 지나가니 비속고있던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게 된 일꾼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물물물을 물라라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수한 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며 동무

의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시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강력적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밤은 퍼그나 깊어갔다. 뜻깊은 이 밤이 또 지나가는것을 못내 안타까와하던 한 일꾼은 마침내 위대한 장군님께 오늘이 장군님의 탄생일이라고 정중히 말씀올리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다정한 음성으로 《생일?!》하고 뇌이시다가 전사가 무슨 생일인가, 자신께서는 생일을 쇠지 않는다고 겸허하게 말씀하시었다. 이어 자신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일을 쇠는 평생을 모르고 지내왔다고 하시며 지금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제일 심려하시

2월 에 사 는 마 음

사 리 원 기 초 식 품 공 장 에 서

한 필수품인 기초식품생산을 위해 마음쓰며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할 불타는 평생을 안고 절충은 기초식품생산을 한사람같이 떨쳐나시었다.

새해 정초부터 기초식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생산능력향상을 힘있게 벌리던 어느날이었다. 깊은 밤 공장을 돌아보다가 이 한 생산현장에 들어선 기사가장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목영호, 리호철, 정준덕동무들이 강행이 눈부르게 제작전투를

다그치고있었던것이다. 현장에서 매일이달이 밤을 새우며 제작전투를 벌리는 그들은 오는 발판이라고 눈을 불리라고 억지로 눈을 떠서 들어보내 것이 바로 몇시간이었었다. 기사가장을 알아본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뜻깊은 광명성절로 일꾼이 기계들을 점검설치하여 훌륭한 기계를 생산하자고 우리모두가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기사가장의 눈금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것이 어제 그들의 심정뿐이라. 공장의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안고 1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2월 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것이다. 지금 공장에서는 제철생소회를 지극히 진행하여 새 제품개발능력을 강화하여서 생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리원기초식품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정직한 기초식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활짝 꽃피워갈 열의에 넘쳐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건 일

중소농기구전시회 진행

얼마전 황해북도에서 중소농기구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전시회에는 도급기관과 공장, 기업소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마련한 중소농기구들이 전시되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도급기관과 공장, 기업소의 당 조직에서는 중소농기구를 계기로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제 계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촌친원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적사업을 제고하였다.

전시회에서는 도농경영리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농경영리위원회의 일꾼들은 이번 전시회에 심층시비, 탈곡기, 보습날 등 농업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수천점의 중소농기구를 내놓았다. 도인민위원회일꾼들은 삽과 호미를 비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장작 버섯 공장 에서 - 본사기자 역을

본사기자 역을

특파기자 김 천 일

